

본촌산단 지하수도 1급 발암물질…광주시, 2년째 외면

로케트건전지 주변 TCE 기준치 9배·호남사니 주변은 11배 초과
복구, 정화 필요 예산 요구에 광주시 “자치구 업무 지원근거 없다”

광주시 북구 본촌산단 지하수에서도 1급 발암물질 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이미 2년 전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광주시에 정화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지원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부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농어촌공사의 ‘본촌산단 지하수·토양 오염 조사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하남산단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 조사에서 지하수에 포함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TCE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주로 금속 세척, 탈지 작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 용역은 ‘하남산단’이 공업용수로 쓰는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7월 15일자 광주일보 7면)가 나온 연구용역과 같은 시기에 진행된 것이다.

2017년 광주시가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하남산단과 본촌산단 인근의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광주시가 북구와 광산구에 각 2억1500만원, 10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원한 것이다.

이에 북구가 발주한 이 연구용역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총적관측정 29개소 및 암반관측정 1개소, 기설암반관정 2개소, 양산저수지 1개소 등 38지점에서 109점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1·2차조사에서 총 14지점에서 채취한 75점에서 TCE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오염지역은 (구)로케트건전지 부지와 호남사니 부지로 확인됐다. 법적 공업용수 수질기준은 TCE 0.06mg/l 미만, (구)로케트건전지 폐수 처리장 하부에서 최고 공업용 수질기준의 9배(0.579mg/l), 호남사니 주변 11배(0.678mg/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오염방지 대책으로 주요 오염지역에 대한 추가 보완조사 실시와 적정정화방법 선정해 정화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북구는 하남산단 용역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은 광산구와 달리 광주시에 해당 용역결과 보고서를 정식 공문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기초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으로 큰 부담이 되는 정화 사업을 한번에 하기 위해 광주시에 도움을 요청하고 환경부에 문의하는 등 지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말 환경부가 본촌산단 인근에 지하수와 토양오염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는 것이 북구의 설명이다.

북구는 실제 정화사업 명목으로 광주시에 54억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지하수관리는 기초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점과 지원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난색을 표했다.

광주시는 5개 지자체중 유일하게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를 마련해 지하수 관리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서구의 예를 들어 북구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하수 관리감독 권한은 기초지자체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수기 광주시의원이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산업단지의 근로자와 인접 주거지역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기준치 500배에 달하는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됐음에도 광주시와 광산구는 침묵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한 데 광주시의 입장은 동일했다.

정현은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지하수 관리·책임 주체는 광산구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산구가 지하수 용역을 진행한 만큼 총괄 권한과 책임은 광주시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이 상황은 긴급재난에 가깝다. 당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광산구는 이날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대치를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내놨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하수 검사 결과가 2년 넘게 묻힌 배경과 책임소재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겠다”면서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조속히 TF를 구성해 오염 확산을 막고, 정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학관, 지역 문학자료 25일까지 공개 수집

광주문학관이 지역 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25일까지 지역 문학자료를 공개 수집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장중인 지역 문학자료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은 25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집 대상은 ‘대각국사문집’, ‘북천일록’ 등 고전문학 희귀본, ‘설강동요집’, ‘김현승 시초’ 등 주요 근현대 조판본, ‘호남학보’, ‘호남평론’ 등 지역

문예지 및 일간지 등이다. 또 지역 작가의 친필원고, 편지, 졸업앨범 등 유일본 자료나 문학 관련 연구·영화 자료, 약보 원본 등도 포함된다.

수집된 자료는 문학·기록물 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기증·매입 여부가 결정된다. 기증자에게는 광주문학관 누리집을 통해 기증내역을 공개하고, 명패 부착 등 다양한 예우가 제공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심 가득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2025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출범식’이 15일 오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무더운 여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이 산타 복장을 한 관계자들과 함께 선물 꾸러미 앞에서 환호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 호남 발전 절호의 기회”

대혁신호남포럼·전남개발공사 환영 입장문…“호남이 최적지”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 산단 조성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에서 환경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호남권 상생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대혁신호남포럼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은 호남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이자 전환기로, 이번 발표가 진정한 지역 미래 성장 동력,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호남 경제의 활성화의 근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환영했다.

대혁신호남포럼은 “RE100 산단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단으로 서남권인 호남이 최적지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호남포럼은 또 “해상풍력, 태양광 등을 통해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가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곳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전력계통을 서둘러 설치하고 대규모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기업들이 이전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파격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도 지난 14일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 계획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전남이 가진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RE100 산업생태계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환영문을

냈다.

개발공사는 현재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내 차세대 에너지산업 부지를 중심으로 신안 해상풍력 발전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모형을 준비하는 한편,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단지, 무안 K-푸드 특화산단, 울촌2산단 등의 전력사용량 분석을 바탕으로 RE100 이행형 업종계획과 계통 연계전략을 수립 중이다.

전남풍력산업협회도 ‘규제 제로, 파격적 인센티브, 전기요금 할인,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RE100 산업단지 실현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환영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국비 846억 확보

전남도, 산자부 공모 3건 선정…친환경선박 산업 중심지 도약 기대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돼 84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탄소중립 선박연료 공급기술 개발(265억원), 친환경 연료 화재폭발 안정성 평가 및 대응설비 개발(302억원),

상반회전 추진시스템 기반 중대형 선박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279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목포 남항 일원에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전기추진 차도선,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충전시험동과 관제유지보수시험동

을 완공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친환경연료연구동, 국제협력 및 복지동, 전력시험동 등 육상 연구지원 인프라를 완공할 계획이다.

도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도 목포 남항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어 연구개발 중심지로서 기반이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탄소중립 연료공급, 화재안전 대응, 전기추진 시스템 등 친환경선박 기술로 향후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서남권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와 연관 기업·연구기관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